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3. 1. 20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 럽

○ 서방국가, 러 용병 '와그너 그룹' 테러대응 무능 비난

- 1.11 駐유엔 美·英·佛 대표부는 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러시아 용병집단 '와그너 그룹'이 同 지역에서의 비효율적인 테러대응과 인권유린 자행 등으로 오히려 치안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난
 - * 同 대표부는 '와그너 그룹' 활동이 극단주의 폭력·테러 차단에 전혀 효과가 없으며, 민간인 학살(30여명 이상)·자원 약탈 등 파괴적 행위를 자행했다고 강조

○ 佛, 파리 기차역 '홍기 난동'으로 6명 부상

- 1.11 佛 파리 북역에서 20대 리비아 남성이 홍기를 휘둘러 경찰관·승객 등 6명이 부상당하였으며 범인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중태, 경찰은 구체적 범행동기는 밝히지 않았으나 테러 가능성은 배제
 - * 同 남성은 3년 前 프랑스에 들어온 뒤 재산죄 등 전과이력 보유, 지난해 여름 프랑스 정부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

○ 英 경찰, 우라늄 소포 관련 테러 혐의로 60대 남성 체포

- 1.15 英 경찰은 지난 12.29 히스로 공항에 도착한 한 소포에서 극소량의 우라늄이 검출된 사건과 관련, 60대 남성을 방사성 물질 제조와 소지에 대한 테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여 조사 중이라고 발표
 - * 다만, 경찰은 용의자의 자택도 수색하였으나 위험한 물질을 발견하지 못했으며, 공공질서를 직접 위협한 정황은 없었다며 보석으로 4월까지 석방

미 주

○ 美, 3D 프린팅 '고스트 건' 사용 범죄 급증

- 1.10 언론은 지난해 LA지역에 발생한 382건의 살인사건 中 74.3%(284건)가 총기에 의해 발생하였으며, 이중 상당수가 추적이 불가능한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한 '고스트 건'에 의한 것이라고 보도
 - * 「무어」 국장은 "고스트 건 생산량과 총기폭력 증가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"고 부언

- 美 일리노이州, 「공격용 무기 거래·소지 금지법」 통과(뉴시스)
 - 1.12 美「프리츠커」 일리노이주지사가 「일리노이 커뮤니티 보호법안」에 서명·공포함에 따라 자국내에서 10번째*로 반자동 소총·대용량 탄창 등 공격용 무기 100여종의 제조·판매·소지 금지
 - * 캘리포니아·뉴저지·코네티컷·하와이·메릴랜드·매사추세츠·뉴욕·델라웨어州, 워싱턴 D.C.

아 · 태평양

- 항소법원, 테러단체 불법 송금 카자흐스탄人 ‘실형’ 유지
 - 1.12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외국의 테러 조직에 돈을 보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(1년 6개월·추징금 142만원 상당)을 선고받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불법체류자에 대해 1심 선고 유지 판결
 - * 同人은 '20.5.21~8월까지 국내에 체류하면서 테러 단체로 지정된 '타브히드 바 지하드(TvJ)' 간부에게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140만원을 3차례 송금한 혐의
- 파키스탄, 2022년 한 해 동안 테러로 419명 사망
 - 1.16 파키스탄 싱크탱크 PIPS는 'Pakistan Security Report 2022' 題下 보고서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파키스탄에서 총 419명이 262건의 테러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발표
 - * 사망자 중 상당수가 군인 및 법집행기관 직원이라고 언급

아프리카

- 콩고민주공화국 무장叛軍, 이번 주만 민간인 27명 살해
 - 1.13 언론은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무장叛軍이 이투리州*에서 이번 주에만 최소 27명의 민간인을 살해했다고 발표했으며, UN軍은 민간인 보호를 위해 지역순찰을 강화하는 등 민주콩고 정부軍을 지원
 - * 광물 매장량이 풍부한 동부지역으로 叛軍연합과의 빈번한 격전지역이며, 정부軍은 同지역의 일부 민간인들을 피난민수용소로 이동 조치

美 텍사스주, 유대교회당 인질 테러

- '22.1.15 美 텍사스주 소재 유대교회당에서 무장괴한이 랍비 등 4명을 인질로 잡고 10시간 가량 경찰과 대치하다 사살되고 인질은 무사 구출
- 인질 테러범은 英 중서부 블랙번 출신의 파키스탄계 영국인 「말리크 파이잘 아크람」 (44세)으로,
 - 1.2 美 뉴욕 JFK공항에 도착, 텍사스주 댈러스로 이동 후 노숙인 쉼터에서 머무르며 노상에서 거래되는 불법총기를 구입
 - 과거 팔레스타인 지지·관타나모 수감자 석방요구 집회에 자주 참여했으며, 英 보안정보부(SS)는 위험인물로 일시 분류했다가 제외
- 당국은 범인이 파키스탄 출신 과학자 「아피아 시디키」 (49세)의 석방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
 - '레이디 알카에다'로도 알려진 「아피아 시디키」는 파키스탄 카라치 출신으로 '9.11테러' 이후 알카에다에 가담
 - '08년 아프간에서 미군 살해기도 등 혐의로 체포, '10년 86년형을 선고받아 텍사스주 포트워스 연방교도소에 수감 중
- 「바이든」 대통령은 “테러 행위”라고 규탄하며 총기 규제 필요성 거론

테러 상식

< 알 카에다(AI-Qaeda) >

- (목표·결성) 쏘세계 이슬람 원리주의 확산 및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「오사마 빈라덴」이 아프간에서 활동하던 각국 출신 對소련 항쟁 참전자들을 규합하여 '88년 결성



* 테러단체 지정 : UN('10.10), 미국('99.10), 캐나다('02.7), 영국·호주·인도·러시아 등

- (연계세력) 탈레반, 알카에다 마그랍 지부(AQIM), 예멘 알카에다(AQAP), 하야트 타흐리르 알 샴(HTS), 이슬람·무슬림 지지그룹(JNIM) 등
- (활동지역) 아프가니스탄·파키스탄 접경지역
- (주요테러) '19.7 소말리아 남부 항구도시 키스마유 호텔 폭탄테러(사망 26명, 부상 56명)
'05.7 영국 런던 지하철과 버스 연쇄 폭탄테러(사망 56명, 부상 770명)
'01.9 美 항공기 4대를 납치, 뉴욕 등에서 공중 충돌 테러(사망 2,996명)